

[특집. 센티멘탈 이데올로기 ; ‘이광수’라는 과제]

해방 후 이광수의 ‘자기서술’과 고백의 윤리*

서은주**

목 차

1. 해방 후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
2. ‘사실’과 ‘허구’의 경계 위에 선 고백의 통속성
3. 죄의식의 산화(散華)와 공감의 (불)가능성
4. 1960년대 이광수의 귀환과 다시 쓰는 고백 - ‘자아비판’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해방 후 발표된 이광수의 고백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지식인의 ‘자기서술’이라는 문제와, ‘친일’을 둘러싼 해방공간의 언설행위에 담긴 논리와 감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대상으로 삼은 주요 텍스트는 「나」와 「나의 고백」이며, 이 두 텍스트를 선후(先後)로 배치한 이광수의 내면과 글쓰기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외부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제적 체험을 분절하고 변형하여 합리화의 논리구조, 혹은 공감의 감성구조로 재구축하는 ‘기억의 정치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해방 후 이광수는 사회적 여론의 기대와는 달리 ‘대일협력’에 대한 ‘참회’의 글쓰기에 앞서 자전소설 「나」를 발표한다. 「나」에서는 어린 시절의 가난, 고아로서의 상처와 외로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던 식민지 젊은이의 고뇌 등을 서술하며 ‘인간 이광수’를 감성적으로 이해시키고자 애쓴다. 특히 ‘간통’이라는 비윤리적 행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1-A0000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위의 고백과 함께, 객관적 현실 때문에 이루지 못한 ‘진실한’ 사랑이야기를 통해 ‘마음’과 ‘몸’을 분리해내는 방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의 영역인 ‘마음’과, 부정적 제약이 지배하는 영역인 ‘몸’을 분리하는 서술의 통속성은 「나의 고백」에 오면 이광수 자신의 ‘대일협력’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나의 고백」은 공적 역사와 사적 기억이 결합된 독특한 ‘자기서술’의 공간으로서, 고백이라는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내면의 참회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민족의 역사(운명)와 개인의 삶을 등치시키고, 민족의 수난을 자기의 수난으로 전화함으로써 ‘고백’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해방기 이광수의 ‘자기서술’은 결코 반성적이거나 성찰적이지 않았던 셈이다. 이는 1960년대 최인훈이 자신의 소설 속에 이광수를 불러내어 반성적인 ‘자아비판’의 의식을 다시 치르게 한 것과 선편한 대조를 이룬다. 이광수로 하여금 다시 ‘고백’하게 한 최인훈의 의도는 이광수로부터 비롯되는 한국의 근대문학사 혹은 지성사의 고통스러운 상처에 대한 재인식과정이자 일종의 치유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 민중 전체를 제국에 ‘협력’한 공범자로 동질화함으로써 스스로의 면죄부를 얻고자 했던 실제의 이광수는, 허구의 소설 속에서 성찰적인 주체로 재탄생한다.

주제어 : 이광수, 고백, 지식인, 자기서술, 윤리, 감성, 공감, 자아비판, 통속성,
「나」, 「나의 고백」

1. 해방 후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

해방 후 이광수가 보여준 일련의 ‘자기 서술’, 즉 고백의 글쓰기는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에 자리한 ‘문사’(文士)로서의, 그리고 ‘민족’과 ‘계몽’의 이름으로 자기 사상을 입론한 ‘지사’(志士)로서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착잡함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을 위해 친일했다는 「나의 고백」(1948)의 논리는 ‘민족반역 행위’의 사실 여부나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 납북되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 동안 행해진 이광수의 언설행위가 결과적으로 파란만장했던 한 식민지 지식인의 최후변론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근대문학사 혹은 지성사의 입장에서조차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한국근대사에서 이광수가 차지하는 상징성의 무게와, 식민지 조선인의 의식과 감성에

실제적으로 다가간 대중적 감화력의 범위 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식민지 조선인들의 대리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제국에 ‘협력’했던 그의 행적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과거를 ‘고백’이라는 전략을 통해 ‘자기 서술’하는 해방 후 이광수의 모습일 것이다.

해방 직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잠시 침묵했던 이광수는 『도산 안창호』의 집필을 의뢰받으면서 다시 공식적인 문필 활동을 재개한다. 이어서 자신의 일상과 내면을 기술한 수상집 『돌베개』(1948)와 자전소설 「나-소년편」(1947), 「나-스무 살 고개」(1948), 그리고 「나의 고백」(1948) 등을 발표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이광수의 글이 허구가 아닌 ‘사실’의 서술이라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¹⁾ 해방 직후에는 지식인들이 좌담회²⁾나 자전적 소설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과오’를 ‘자기비판’하는가 하면³⁾, 한편에서는 『신천지』 등의 잡지를 중심으로 학병들의 좌담회나 수기⁴⁾, 항일 운동가들의 투쟁기 혹은 수난기⁵⁾ 등이 자주 게재되는 현상을 보면,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행위든 자랑해야 할 투쟁이든 전반적으로

1) 이광수는 해방 이후에 『꿈』(면학서포, 1947)을 발표하는데, 이는 1938년 전반부를 쓰다 미완으로 둔 것을 해방 후 봉선사에서 집거할 무렵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 발간된 소설들은 해방 이전에 썼던 작품을 재출간한 것이었고, 이 시기 새로 쓴 소설은 『사랑의 동명왕』(1950)과, 미완으로 끝난 『서울』(1950)이라는 연재소설뿐이다. 김윤식, 『개정·증보: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술, 1999), 400면, 582~585면 참조.

2) 일명 ‘봉황각 좌담회’(「문학자의 자기비판」, 『인민예술』(1946.10), ‘아서원 좌담회’(「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 『예술』(1946.1) 등이 대표적이다.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49-87면 참조.

3) 이태준의 『해방전후』,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 지하현의 「도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신천지』에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학병들의 체험을 좌담회(「귀환학병의 진상 보고」, 1946.2; 「구사일생 중경(重慶)으로」) 형식으로 게재하였고, 학병을 거부하여 산으로 은신했던 청년의 수기(「신관 임거정-학병거부자의 수기」(1946.4-6))를 연재하였다. 이들 글에서 귀환학병이나 학병거부자 모두 스스로를 ‘민족’을 위한 용사로 표상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지현의 글「학병의 기억과 국가-1940년대 학병의 좌담회와 수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2(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참조.

5) 『신천지』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소개나 항일운동가들의 회고를 자주 게재하였다. 1948년 단행본으로 발간된 오기영의 『사슬이 풀린 뒤』(성각사)도 이전에 ‘실화소설’ 혹은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4회(1946.3-6)에 걸쳐 『신천지』에 연재되었던 것이다. 『사슬이 풀린 뒤』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한기형의 『해방 직후의 수기문학-『사슬이 풀린 뒤』에 대하여』, 『사슬이 풀린 뒤』(오기영 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참조.

‘사실의 기록’이 부각되는 분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력한 제국의 통제 속에서 억압되고 은폐되었던 것들이 해방이라는 시공간을 맞아 붓물 터지듯이 언어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제 앞에서, 그리고 사상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거의 공과(功過)를 부각시키거나 혹은 반성하는 행위는 현실에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通過)의례이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명백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의 ‘고백’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강요에 의해 수행된 측면이 강하지만, 고백이라는 ‘자기 서술’ 행위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자기방어의 욕망을 작동시킨다는 점에서 자발성이 개입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명백한 ‘반민족행위자’인 이광수의 ‘자기 서술’ 역시 이 두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제국 일본의 식민화 정책에 대한 이광수의 ‘협력’ 행위는 이미 1922년 「민족개조론」이 발표되던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일체의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수양을 통한 “개조의 성질이 오직 민족성과 민족생활”에 있음을 천명한 ‘민족개조론’은 일종의 준비론으로서, 아직 3·1 운동의 열기를 기억하던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투항의 태도로 비춰져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⁶⁾ 이 당시의 정황은 ‘민족지사’ 이광수에 대한 조선 대중들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얼마가 컸던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광수 자신의 입을 통해 공식화된 ‘훼손’의 계기는 동우회사건이었다. 1937년 6월 총독부는 동우회 조직을 해산시키고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는데, 이 사건은 1941년 전원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4년이나 끌며 이광수를 괴롭혔다.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수립될 무렵 집필을 시작하였다는 「나의 고백」에서 이광수는 매우 장황한 전후 사정을 덧붙여 이 ‘훼손’의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곧이어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민족을 위

6) 「나의 고백」에서 이광수 스스로 이 시기 상황을 회고한 바에 의하면, 『개벽』에 실린 「민족개조론」은 독자들에게 “민족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광수에 대한 가해위협뿐만 아니라 개벽사 습격, 최린의 집 습격이 있었고 이광수 매장론이 비등했다고 한다. 『이광수 전집』7(삼중당, 1971), 266면.

한 친일’이라는 논리를 세운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적 여론이 이광수로부터 듣기를 기대했던 ‘대일 협력’에 대한 ‘참회’로부터 ‘고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광수는 「나의 고백」에 앞서 발표한 자전소설 「나-소년편」, 「나-스무 살 고개」에서 어린 시절의 가난,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외로움,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과 감정으로 연루된 여성들과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던 식민지 젊은이의 고뇌 등을 통해 인간 이광수를 대중들에게 감성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시선을 끄는 부분은 ‘나’가 결혼한 상태에서 ‘간통’했던 사실과 ‘실단이’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를 고백하는 대목이다. 허구와 사실이 교묘히 혼재하는 이 소설에서 ‘간통’의 진위나 사랑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친일’에 대한 고백에 앞서 개인의 도덕적 과오를 먼저 고백하는 방식의 ‘자기 서술’을 선택한 이광수의 의도는 분명 따져볼 일이다. 문제적 글쓰기 「나의 고백」의 논리와 정서도 이 앞선 고백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서술하는가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대하는 현재의 책임의식도 달라지고, 책임을 지는 방식의 의미도 달라진다.⁷⁾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에서 흔히 확인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기억과 만나는 일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집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실존했던 개별 인간들의 무수한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감성과 상상력이 요구된다. 물론 역사적 혹은 객관적 사실의 진위여부는 그 자체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역사의 해석적인 차원과 함께 정서적인 차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⁸⁾ 이광수의 ‘친일문학’이나 ‘협력 행위’에 대해서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출발로 하여 이후 김윤식, 이경훈 등의 실증적인 자료 발굴과 번역, 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논의된 바 있다.⁹⁾ 최근에

7) 테사 모리스 스즈키, 『우리 안의 과거』(김경원 옮김, 휴머니스트, 2006), 40~43면 참조.

8) 위의 책, 46면.

9) 대표적인 연구로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1·2(한길사, 1986); 이경훈의 『이광수의 친

는 이광수의 ‘협력’에 대한 ‘동정론’ 혹은 ‘단죄론’을 모두 지양하면서 이광수 문학의 표층과 내면의 괴리·충돌·균열에 주목하거나, 제국에의 욕망과 죄의식 혹은 희생자의식이 착종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을 반영하는 한 사례로 그의 문학을 보고자 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¹⁰⁾ 이 글의 관심사 또한 이광수의 ‘대일협력’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다기보다, 해방 후 이광수의 사례를 통해 지식인의 ‘자기 서술’이라는 문제와, ‘친일’을 둘러싼 해방공간의 언설행위에 담긴 논리와 감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나아가 결코 반성적이지거나 성찰적이지 않았던 해방기 이광수의 ‘자기 서술’과, 1960년대 시공간에서 최인훈에 의해 다시 소환된 이광수의 ‘자아비판’을 연결시켜 그 의미를 맥락화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제적 체험을 분절하고 변형하여 합리화의 논리구조, 혹은 공감의 감성구조로 재구축하는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2. ‘사실’과 ‘허구’의 경계 위에 선 고백의 통속성

자서전은 대개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 보고 그 사건이 현재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선을 추적하는 과정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소설이라는 형식 안에 자서전 형식을 수렴하는 이유는 그러한 형식을 통해

일문학연구』(태학사, 1998)가 있으며,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김윤식 편역, 역락, 2007) 등의 자료집이 있다.

10)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연구로는 최주환의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소명출판, 2005)와 서영채의 『아침의 영웅주의』(소명출판, 2011); 노연숙의 『해방 전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26(한국현대문학회, 2008) 등이 있다.

11) 김경미는 해방기 이광수의 『돌베개』와 『나의 고백』, 단정수립 후의 『사랑의 동명왕』, 『서울』을 대상으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드러난 고백 서사의 전략과 민족 담론의 양상”을 고찰한 바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돌베개』의 관조적 서술방식이 1948년을 기점으로 『나의 고백』에 이르러 계몽적 서술방식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민족운동가’로서의 자신을 투사하려는 욕망의 기획이라고 보고 있다. 해방 후 이광수의 글쓰기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의 구축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김경미,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기억 서사와 민족 담론의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43(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참조.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진실, 즉 개인의 내면적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²⁾ 이광수의 자전 소설 「나-소년편」, 「나-스무 살 고개」(1947~48)는 ‘김도경’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이광수의 실제 삶과 겹쳐져 있으며, 오산에서 교원 생활을 하던 스무 살 무렵까지의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제국의 권력과 연루되기 훨씬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¹³⁾ 「나-소년편」에서는 조상이 정승, 참판을 지낸 집안임에도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궁핍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 무지와 가난이 만든 부모의 병과 죽음, 열악한 환경에서 형성된 고아의 본능적 욕망, 실단이에 대한 사랑의 좌절과 애정 없는 결혼,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과부와 ‘간통’ 등이 여섯 편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나-스무 살 고개」에서는 ‘스무 살 안팎’, ‘명암’이란 제명 아래 오산학교 교원으로서의 삶과 고뇌, 종교를 둘러싼 갈등, 출세에의 욕망과 실패 등에 관해 서술한다. 「나」의 서문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광수의 실제 자전적 삶을 대상으로 서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세상에 빛을 주고 향기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 (어찌 감히 그것을 바라랴.) 마치 이 추악한 몸을 세상에서 없이 하기 위하여 화장터 아궁에 들어가서 고약한 냄새가 한꺼번에 나고는 다시 아니 나는 것과 같이 이 이야기로 내 더러움을, 아니 더러운 나를 살라버리자는 뜻이다. (...)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한 물건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기록은 똑바로만 쓴다 하면, 사람에게 무용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기록과 다름 없이 무슨 뜻을 가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권선징악의 공리적 동기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님은 위에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루소가 그의 참회록에서 그는 후일 심판 날에 하느님의 앞에 내어놓을 답변으로 그것을 쓴다는 뜻을 말하였거니와, 내 이야기는 그런 뜻과도 다르다. 나는 어디 답변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소용이 될지는 모르나 한 번 있는 대로 적어보자는 것이다. 다만 그뿐이다.¹⁴⁾

12)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63면.

13) 소설에 그려진 상황을 이광수의 실제 삶에 대입해보면 그가 오산학교를 떠난 1913년 이전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윤식이 『개정·증보: 이광수와 그의 시대』2(술, 1999)에서 작성한 연보 참조.

14) 이광수, 「『나』를 쓰는 말」, 『이광수전집』16(삼중당, 1963), 325~6면.

이광수는 이 소설이 “무엇에 소용될는지”를 의도하지 않고 “있는 대로” 쓴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가공되지 않은 ‘사실’의 고백임을 주장한다. 고백은 대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참회의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형식에 가깝다. 즉 고백이란 일면 연약해 보이는 태도 속에 “주체로서 존재할 것”을 욕망하는, 왜곡된 또 하나의 권력의지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민족반역’에 대한 단죄의 여론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아무런 ‘기획’ 없이 “어디 답변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이광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물론 ‘자전소설’이라는 장르적 규정 속에 사실과 허구가 모호하게 혼재하는 이 텍스트를 두고 ‘참회의 진실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발표 당시에도 이 글의 허위성이나 참회의 진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김동인은 ‘춘원의 『나』’란 글에서 “진실한 사죄문 진실한 참회기(懺悔記)를 바라던 대중은 『꿈』에서 첫 번 속고 『나』에서 두 번째 속”¹⁶⁾았다는 표현으로, 해방 후 이광수의 “무조건 사죄”만을 기다리던 당대 조선의 대중들이 받은 실망감을 함축한 바 있다. “첫머리부터 끝줄까지가 전부 허위”라고 싸잡아 공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동인도 이광수의 조상이 실제로 정승, 판서를 지낸 적이 없음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사죄와 참회를 해야 할 처지에 ‘집안 자랑’, ‘자기 자랑’으로 스스로를 ‘미화(美化)’시키는 이광수의 태도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광수는 ‘민족반역자’의 참회록을 기대했던 당대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왜 굳이 이런 방식의 성장담을 내놓은 것일까?

이광수는 대중의 감성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소설가였다 따라서 그는 해방 공간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아가 스스로를 주체로 재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¹⁷⁾ 특히 앞서 발표한 『꿈』이 엄

15)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박유하 옮김, 민음사, 1997), 103~129면 참조.

16) 김동인, 「춘원의 『나』」, 『신천지』(1948.3), 122면.

17)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당면 과제였던 해방기에 이광수의 문학은 가장 활발하게 출판되었고,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베스트셀러작가라는 대중적 지지와 물질 기반은 이광수에게 자신의 ‘대일협력’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요소로 인지되

칭나게 팔려나가면서 자신의 이야기 방식이 여전히 대중들에게 소비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작가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한 터였다.¹⁸⁾ 『나』를 쓰면서 이광수는 “문학을 짓는” 자신을 일찍이 “길가에 주막을 짓고 앉았는데 이야깃꾼”으로 자처했음을 밝히며¹⁹⁾,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픔을 잊게 해주는 이야기꾼-소설가의 존재감을 새삼 부각시킨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불행한 성장 드라마’를 먼저 꺼내들었고, 외로움·육체적 욕망·죄의식·불안·출세욕·인간적 나약함 같은 내면심리를 노출하면서 거기에는 상처·고통·실패·회한 등을 첨가함으로써 인정에 호소하는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나’의 집안은 높은 벼슬을 지내고 학문이 높은 조상을 두었지만, 투전판이나 드나들며 무능했던 아버지로 인해 주위 친척들에게 폐를 끼칠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나 이질에 걸려 다 죽어가던 ‘나’를 극진하게 간병하여 살려낸 아버지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어린 나이에 관혼상제의 예를 배우고 축문을 암송하는 재주 많은 ‘나’에게 아버지는 스승이자 동무였다. 특출한 것이 없는 어머니는 착하고 헌신적이다. 아버지가 ‘귀통(호열자)’에 걸려 죽고, 옆에서 간호하던 어머니도 같은 병으로 죽음을 맞는다. 아버지가 죽은 후 자신도 병에 전염된 것을 안 어머니는 장남인 ‘나’와 동생이 고아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며 그들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젓먹이 막내 누이와 같이 죽으려 한다.²⁰⁾ 이광수는 비극적인 가족사의 한 시기를 그리면서 서로를 애뜻하게 염려하고 사랑했던 기억을 유난히 강조한다. 특히 부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바로 앞에 어느 여름날 저녁의 행복했던 가족 풍경을 배치해 놓은 부분은 이 자전소설이 대중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고저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전형적인 통속 드라마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수, 「해방기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민족문화연구』5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참조.

18) 이 책의 인세로 당시에는 무척 귀했던 피아노를 샀다는 사실을 이광수의 딸이 증언하고 있다. 김윤식, 위의 책, 402면 참조.

19) 『『나』를 쓰는 말』, 위의 책, 323면.

20) 어머니의 바람 때문인지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젓먹이 누이는 “어머니보다 한 해 뒤떨어져서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저녁에 마당에 밀짚거적을 깔고 모깃불을 놓고 식구들이 모여 앉았노라면 박나비가 박꽃에 날아오고 하늘에는 별뚝이 많았다. 참외, 수박은 사다 먹을 형세도 못되지만 어머니가 가꾼 강냉이를 밥 위에 찌거나 아궁이에 구워서 먹을 수는 있었고, 아버지는 불 잘 안 붙는 담배를 모깃불 화로에 붙일 수가 있었다. 젓먹이 누이는 재롱을 피우고 여섯 살 먹은 누이는 반딧불을 따라다녔다. 개구리와 두꺼비가 담뱃재를 얻어먹으려 엉금엉금 기어들었고 극성스러운 모기들은 바람결에 모기 내 밀리는 틈을 타서 덤비었다. 아버지는 담뱃대를 털고는 또 담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얼마 안 되는 삼을 삼으면서 나를 장가를 들어서 어서 며느리를 얻어야 한다고 불평을 하였다. 박복한 우리 집에도 이러한 시름없는 순간이 있었다.²¹⁾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개인으로서의 이광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우선한다. ‘나’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시름없는 순간”으로, 아니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해낼 만큼 가여운 존재로 그려진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운명을 짊어지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나’의 불우한 성장기는, ‘민족지사’, ‘대문호’ 혹은 ‘변절자’라는 이름으로 세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공인(公人)’ 이광수와 대조된다. 사실 젊은 시절부터 이광수는 문제적인 글쓰기와 사생활 등으로 숭배와 비난이라는 극단적인 세인의 반응에 시달려 왔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반응은 모두 이광수와 평범한 조선인들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늘 그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기억의 정치학을 통해 재현되는 이광수는 평범한 일상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상처투성이, 콤플렉스 덩어리였다. 따라서 정작 진심으로 사랑했던 실단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그대로 지켜본다든가, 경제적으로 ‘처덕’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해놓고는 아내를 대놓고 외면한다든가, 집안 살림을 돌봐주며 드나들던 문의 누님을 하룻밤 “정옥의 독한 이빨로 씹어버”²²⁾리는 등의 ‘나’의 여성 편력도 불행했던 개인 이광수의 정서적 결핍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데 동원된다. 또한 인격적·도덕적 결함을 노출하면서도 한없이 가엾고 불행한 존재로 서술되는 ‘나’는 대중의 반감을 상쇄시키는 데 일조한다.

21) 「나·소년 편」, 『이광수 전집』11(삼중당, 1962), 408면.

22) 앞의 책, 449면.

‘대일협력’을 참회하고 죄과를 고백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한 이광수의 응답은 그런 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무척 고약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비평활동을 펼쳤던 김동석은 격렬한 비판을 퍼붓는다.

조선문학에서 이 이상 가는 호색문학(好色文學)이 또 있는가? 그도 자연주의자들처럼 정정당당하게 남녀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도덕가인양 가면을 쓰고 예수니 불타니 톨스토이니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악질적 호색문학에다 도덕적 가치를 도금하려 애쓰는 것이 춘원이다. 조선 민족이 모두 지독한 건장중에 걸리지 않는 바에야 香山光郎을 잊을 수 없을 것이요 香山光郎과 異名同人인 이광수가 이제 와서 민족개조론식의 설교를 가지고 독자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아는 지라 「불의의 애욕을 심각하게 그린 문학일수록 애독자가 많다」는 奸智에서 『원효대사』니 『꿈』이니 『나』니 하는 가장 악질적인 호색문학을 가지고 세헤라사데(세헤라자드·『아라비안나이트』의 여주인공)의 故智를 닮아 조선민족을 또한번 속이고 자기의 문학적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켜 보려고 꾀한 것이다.²³⁾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밤마다 신기하고 흥미로운 연애담, 모험담을 펼쳤던 세헤라자드를 해방기 이광수의 처지와 겹쳐 놓은 김동석의 착안이 흥미롭다. 세헤라자드에게 왕의 흥미를 끌고 감정 이입을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묘책이었다면, ‘민족지도자’ 혹은 ‘계몽사상가’가 아니라 ‘이야기꾼-소설가’임을 강조하며 시작한 「나」의 이야기는 이광수에게 세상의 단죄로부터 시간을 벌면서 최후의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후’란 여론의 ‘법정’ 혹은 ‘민족반역자’에 대한 실체의 ‘법정’에서 자신의 ‘훼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는 ‘최후의 상황’을 예비하면서, 자신에게 내려질 세상의 판결을 염두에 두면서 ‘정상 참작’을 위한 ‘이야기’를 ‘고백’했던 것이다. 어쩌면 진위 여부를 떠나 고백하기 부끄러운, 특히 유교적 문화권에서 성장한 조선의 남성 엘리트가 사생활에서의 과오를 털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세인들의 관심을 붙잡았을 것이다. 비평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이광수 특유의 통

23) 김동석, 「위선자의 문학-이광수론」, 『뿌르조아의 인간상』(탐구당서점, 1949), 88-9면.

속적 화법이 당대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여 이광수를 향한 비난의 강도를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는 실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광수는 이점을 고려하여 「나」를 집필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나’의 간통 행위는 “악인의 적에 등록이 되고, 양심의 옥함을 깨뜨린”²⁴⁾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처리해버리는 반면, 실단과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는 ‘나’의 자책감을 증폭시키며 지속적인 이야기로 발전한다. ‘나’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된 실단은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과부가 되는데, 우연히 산속에서 재회한 실단에게 ‘나’는 재혼을 권한다.

너 같은 현 년은 열 스무 번 뒤흔을 해도 종단 말씀이죠? 그 말씀 들을 만도 해요. 내가 정말 단정한 계집이면야 언제까지라도—평생이라도 당신을 기다리지 왜 시집을 가요? 그날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기까지 한 걸 왜 내가 초례청에 들어가요? 왜 내가 그냥 당신께 매달려서, 난 다른 데로 시집은 안 가요, 날 데려가요, 하지를 못하였어요? **그러고는 마음은 당신한테 두고 몸만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갔어요. 그랬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깐 어차피 뒤흔한 현 계집이지요. 그러니깐 당신이 나를 업수이 녀겨서 개가해라 하시는 게요?**²⁵⁾

당혹스러울 정도로 ‘나’를 원망하던 실단은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던 실단의 ‘뒤흔’은 이광수의 ‘뒤흔’과 겹쳐진다. 상황에 의해 ‘마음’과 ‘몸’을 분리한 채 살아야 했던 실단의 불행은, 그녀의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광수의 기구함과 분리될 수 없다. 이광수는 불행한 청춘의 성장담을 통해 대중들의 인간적 연민을 자극하는 동시에, ‘마음’과 ‘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을 견지했던 실단에게 ‘뒤흔’ 운운하는 것이 가혹한 처사임을 항변한다. 여기서 이 긴 이야기의 궁극적 의도가 얼굴을 내민다. ‘몸’을 더럽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난국을 돌파하는 방법은 ‘마음’을 분리해내는 길뿐이다. 그것은 ‘친일한 몸’과

24) 「나-소년 편」, 위의 책, 449면.

25) 「나-스무 살 고개」, 『이광수 전집』11(삼중당, 1962), 567면.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대립쌍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는 이미 「나」에서의 자기서술을 통해 ‘협력’에 대한 답변의 논리를 고안해낸 셈이다.

이광수는 「나-스무 살 고개」를 따로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쓴다.²⁶⁾

불행한 사람은 그 일가 친척, 친지까지 불행한 것이다. 같은 인연의 중생인 때문이다. 그는 사랑과 행복의 웃음을 구경이라도 하려고 이 집 저 집을 찾아 다녔으나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은 불행뿐이었다. 그는 인간 세상을 저주할 만도 하였다. 더구나 그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들어왔다. 그가 잘하노라고 한 일은 언제나 세상에서는 반대로 해석되었다. 그가 호의를 베풀 자는 그의 적이 되었다. (...) 이러한 남자의 스무 살 고개를 그린 것이 이 책이다. 이러한 젊은 사람이 장차 어떤 모양으로 발전될 것인가. 제간에는 잘난 체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그의 앞길은 언제나 가시밭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의 일생의 실패와 오뇌의 기록이 될 것이다.

스무 살 고개는 아직 인생의 정말 전쟁에 들어선 데는 아니다. 이제 겨우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바라보이는 고개다.²⁷⁾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이광수의 어조는 자조적이라기보다 청승스러움에 가깝다. 스무 살 무렵까지를 파란만장한 서사로 재해해낸 이광수는 정작 세상이 고백하기를 강요하는 시간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 비유한 채 「나」에서는 비워놓고 있다. 이후의 시간이 『나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두 개의 ‘자기 서술’이 전혀 다른 태도와 글쓰기를 선택하고 있는 부분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광수의 ‘사실’적 삶을 ‘허구’의 통속적 이야기와 절묘하게 결합시켰던 「나」는 표면적으로 격렬한 비난을 불러왔지만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힘에 의해 사회적으로 동정 여론을 내면화하는데 기여한다.

26) 이 단행본은 1948년 생활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의 서문 끝부분에 “1948년 추석 며칠 전 서울 경복궁 옆에서”라고 되어 있다.

27) 「서문-나-스무살 고개」, 『이광수전집』16 (삼중당, 1963), 321~2면.

3. 죄의식의 산화(散華)와 공감의 (불)가능성

「나의 고백」은 1948년 12월 춘추사에서 발간되었는데, 여수·순천사건 직후에 민심이 흉흉할 때 쓴 것으로 반민특위가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49.1.15)하기 이전에 집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친일」 관계의 내용은 「나의 궤절」, 「민족 보존」 두 장뿐으로 전체의 분량 가운데 그리 큰 비중은 아니다. 이광수는 「나」와 「나의 고백」 사이의 기간에 그간에 썼던 수필들을 모아 『돌베개』(1948)를 발간하는데, 앞선 작품들의 성공에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여 이제는 자신에게 미래가 있을 뿐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서문에 쓰고 있다. 이 자신감은 기대감과 결합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지켜보며 「나는 독립국 자유민이다」라는 시를 발표하게 된다.

나는 죄인. 비록 대청 광서에 나고
메이지, 다이쇼의 거상 입고
아마테라스, **쇼와에 절한 더러운 몸**이언마는
건국 선거에 투표하는 날
조국은 나를 용납하여 불렀다
7월 17일 헌법공포식 중계방송 듣고
흘린 감격의 눈물로 먹을 갈아
사는 날까지 조국 찬양의 노래를 쓰련다.
그리고 독립국 자유민으로 눈감으련다.²⁸⁾

「나」에서 실단을 통해 언어화된 ‘훼손된 몸’은 이 시에 오면 스스로를 향해 “쇼와에 절한 더러운 몸”으로 표현된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없었다면 스스로를 “더러운 몸”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이광수의 이야기를 여전히 읽어주고 사주는 조선의 대중 독자들이야말로 이광수로 하여금 ‘궤절’을 당당히 언어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장본인들이다. 표면에서는 이광수의 친일을 지탄하면서도 이광수의 ‘이야기’에 늘 매혹을 느끼는 그들의 균열은 이광수의 파탄과 결코 무관하지

28) 이광수, 「나는 독립국 자유민이다」, 『삼천리』(1948.8).

않다. 이광수는 독립국 자유민의 감격을 그리는 가운데, “민족 보존”을 위해 친일했으며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개인적 명리욕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본격적으로 합리화하는 「나의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의 고백」은 글의 80% 이상이 민족지사로서의 이광수의 삶을 서술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여기서의 이광수는 「나」에서 보여주었던 ‘개인 이광수’라기보다, 조선의 근대사를 함축하는 역사적 국면을 고스란히 자기화하고 있는 ‘공적 주체 이광수’이다. 전체 장 구성을 열거하면 ‘민족의식이 싹트던 때’라는 제목에서 시작해, ‘민족운동의 첫 실천’, ‘망명한 사람들’, ‘기미년과 나’, ‘나의 궤절’, ‘민족보존’, ‘해방과 나’, 그리고 ‘부(附):친일파의 변’으로 마무리된다. 러일전쟁, 동학운동, 을사조약을 거쳐 오산학교의 교원 생활, 상해 망명체험, 3·1운동 전후의 체험, 도산과의 교류, 동우회 조직 활동, 대일 협력 등을 시간적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당대의 정치 상황, 국제 정세를 고려한 자신의 논리적 판단 등을 개입시킨다. 개별 사건의 정황을 전달하기 위해 때로 인물들의 대화를 도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설조의 장황한 담론을 펼치는가 하면, 자신의 진의를 전달하기 위한 감성적 호소도 군데군데 동원하고 있다. 「나의 고백」은 공적 역사와 사적 기억이 결합된, ‘민족’과 ‘나’의 서술 공간인 셈이다. ‘나’의 삶은 모두 ‘민족’과 결부되어 있으며, ‘나의 궤절’이 ‘민족보존’을 위한 것임을 합리화하는 데 이 글은 집중하고 있다. ‘친일파’로 단죄된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자’로서의 자신의 거점을 ‘상해체험’을 통해 소명하려는 욕망을 강하게 표출하고, 남북이 갈라져 각자의 국가를 수립하는 시점에서 친일 행적에 대한 방어적 거점으로서 ‘반공주의적 민족주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포착된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이미 친일잔재청산이라는 과제보다 반공이 테올로기를 중심으로 국가 건설의 방향을 잡아가던 남한의 정치 현실을 이광수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던 것이다. 따라서 「나의 고백」 역시 ‘나’를 내세운 ‘고백’의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과거의 행적에 대한 내면의 참회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민족의 역사 혹은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등치시킴으로써, 또한 민족의 수난을 자기의 수난으로 전화함으로써

‘최후의 고백’을 대신하고 있다.

이광수는 「나의 고백」에서 동우회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훼손’ 하였음을 공식화한다.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이광수의 말과 행동에 따라 조직원들의 목숨이 좌우되는 상황의 무게를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며 병마 속에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볍게 이해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 사실의 고백이라는 형식 속에서 기억의 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점이다. 동우회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이광수와 목격자들의 증언은 현저하게 엇갈린다.

이 마지막 재판에 검사는 논고의 대부분은 내 죄를 증명하기에 바빴다. 그는 민족주의 계통의 범죄로 취급된 조선 청년의 칠 내지 팔할이 피고의 저서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자백하였으니, 그렇게 많은 청년을 그르친 것만 하여도 이광수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 하였고, 또 피고가 근래에 천황 충심을 말하고 내선 일체를 말하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운동의 한 방향에 불과하다. 이 시국에서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고는 민족운동을 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하고.

“피고는 죽어도 민족주의를 버릴 자는 아니니, 재판소는 그에게 속아서는 아니 된다.”(…)

“검사의 말은 옳다. 내가 천황을 말하고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은 오직 조선민족을 위한 것이다. 만일 그리 하는 것이 조선민족에게 이익이 아니 된다면, 나는 곧 독립운동을 시작할 것이다.”하였다. 그날 변호사는 왜 그런 위대한 말을 하느냐, 아슬아슬했다고 나를 책망하였다.²⁹⁾

무죄판결을 받은 재판의 변론으로 보기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대목이다. 김윤식이 발굴한 1941년 11월 17일의 판결문의 기록을 보면 이광수의 회고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재구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광수의 동우회운동은 “조선 동포의 문화적 향상에 있고 타의 없음이 명백”하며, “조선인이 자기 사회를 위해 고도의 자치를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천황제와 상관함이 없음은 물론 주권의 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³⁰⁾ 즉 조선총독부는 동우회운동이 제국의 질

29)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7(삼중당, 1971), 275면.

서를 위협하는 불온한 것이 아님을 인정함으로써 이광수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 외에도 민족지도자였던 인물이 제국의 재판정에서 보여준 나약하고 비겁한 태도에 ‘환멸’을 느꼈다는 증언³¹⁾을 볼 때, 이광수의 기억과 재판 기록 사이에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가운데에 이광수의 기억이 가장 자기 이익에 봉사하는 언설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의 고백」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키며 문제적이 된 부분은 ‘부(附):친 일파의 변’이다. 여기서는 병자호란 때 청에 끌려가 ‘더럽혀진’ 조선 여인을 다시 조선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홍제원 목욕’이라는 의식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일화, 청에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삼학사’의 이야기, 그리고 혁명이 끝나면 이전 일을 불문에 붙여 인적 자원의 손실을 예방했다는 ‘로마의 망각법’ 등이 소개된다. 이는 모두 민족 혹은 국가 단위의 침략과 정복에 의해 벌어진 역사적 상황을 개인의 윤리적 과오로 규정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차용된 역사적 일화들이다.

일정에 세금을 바치고, 호적을 하고, 법률에 복종하고, 일장기를 달고, 황국신민서사를 부르고, 신사에 참배하고, 국방헌금을 내고, 관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한 것이 모두 일본에의 협력이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도 협력이다. 왜 그런고 하면, 그가 협력을 아니 하였던들 죽거나 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만일 일정 사십년에 전혀 일본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살아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해외에서 생장한 사람들일 것이니, 이들만 가지고 나라를 하여 갈 수가 있겠는가.³²⁾

30) 「이광수와 동우회사건 판결기록」, 『이광수와 그의 시대』2(김윤식, 서울, 1999), 314~7면 재인용.

31) 2심 공판정에서 이광수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어린 어조로 “나는 천황폐하의 적자”라고 진술했다가 오히려 일본 검사에게 혼이 났다는 일화다. 검사는 “이놈아! 네가 어찌서 일본 천황 폐하의 적자란 말이나. 러시아 사람 앞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하겠지. 이놈아! 너는 이 때까지 민족주의자로 행세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지도한 청년들에 대한 책임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천황폐하의 적자라고 하느냐”라고 호통쳤다고 한다. 송건호, 「춘원 이광수론-한 친일문학가의 의식구조」, 『한국근대문학사론』(임형택·최원식 편, 한길사, 1982), 631면 재인용.

32)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7(삼중당, 1971), 284면.

前韓帝國이 망할 때에도 閔忠正 등 절사가 났다. 그를 우리는 흠모하거니와, 그렇다고 당시 이전만이 다 자살할 수도 없어서 사십년 일정 밑에서 치욕의 생활을 계속한 것이다. 그후에 국내에서 국외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렸다. 도는 망명의 고초를 맞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 민족이 다 피를 흘릴 수도 없는 일이고, 다 망할 수도 없을 노릇이다. 그래서 삼천만 서민들은 가혹한 지사들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독립의 영광을 가져 올 날을 바라면서, 정복자들의 법을 좇고 영대로 하면서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애국지사들이 혹은 죽고 혹은 감옥에 가고 혹은 해외에 망명한 동안에, 정복자의 忌諱를 피할 정도의 타협을 하면서도 혹은 교육에 혹은 산업에 혹은 변호사로 혹은 관공리로 혹은 공직자로 나서, 가능한 한의 동포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국내에 있으면서 「반민족행위」를 아니하고 살아 온 사람은 삼학사 같은 지사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팔자를 가진 이이었을 것이니, 그는 아마 민족을 위한 행위도 아니 하였을 것이다.³³⁾

아무 잘못도 없이 강제로 끌려가 능욕당한 여성들의 ‘더럽혀진 신체’를 유교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용납하지 못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태도에 비하면, ‘목욕’이라는 상징적 의식을 통해 구제하려 했던 인조는 최소한 양심은 있는 군주였다.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군주가 희생당한 백성을 다시 벌한다는 것은 봉건적 가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홍제원 목욕이든 삼학사의 일화든 이광수의 논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친일’을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에 자신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식민 치하의 조선반도에 거주했던 조선 민족 모두를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제 통치에 저항해 죽거나 망명하지 못한 바에야 ‘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강변한다. 여기에 이르면 자신을 향한 ‘친일’이라는 단죄에 저항하는 이광수의 논리는, 어느덧 식민지 조선에서 살고 있던 조선인 모두를 암묵적인 ‘죄인’의 위치로 몰아간다.³⁴⁾ 이 부분은 매우

33) 같은 책, 284면.

34) 물론 이러한 논리는 이광수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박헌영은 ‘8월테제’에서 일본제국주의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던 조선민족 자체가 자기비판의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봉황각 좌담회’에서 한효는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사람 누구나가 일본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재진, 「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47(한국비교문학회, 2009), 272-5면 참조.

중요한데, ‘친일’의 기준과 정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일’ 행위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광수의 논리가 미치는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광수 식의 논리 틀 속에서는 식민지에서 살았던 조선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 즉 경제적 계급, 직업, 교육이나 지식의 정도, 자발성 여부 등이 모두 무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조선인 전체를 ‘협력의 공범자’로 몰아감으로써,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떤 형식이든 식민지 체제에 ‘협조’한 피식민지인들의 죄의식에 광범위하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광수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자신들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해 주저하던 피식민지인들에게 이광수의 역공은 피식민지인 개인이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결백함’을 되찾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광수가 제기한 이 비약의 논리는 현재에도 그 위력을 행사한다.

4. 1960년대 이광수의 귀환과 다시 쓰는 고백 - ‘자아비판’

1962년 『이광수전집』의 출간과 더불어 이광수 전기인 『춘원 이광수』(1962)가 발간되면서 그의 문학만이 아니라, 인간 이광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대된다. 박계주와 곽학송이 공저한 『춘원 이광수-그의 생애·문학·사상』은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나의 고백」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글로 민족주의자로서의 이광수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일조한다. 반면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66)의 출간은 해방 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친일 문제를 재점화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1960년대는 이광수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광수의 계몽사상과 근대의식, 문학사상 등을 학술적으로 대상화하려는 접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주로 외국문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이광수 연구는³⁵⁾ 이광수의 존재를 근대문학의 개척자로 자리매김

35) 영문학자 송옥, 유종호와 불문학자 김봉구, 김현, 정명환 등이 비슷한 시기 이광수 관련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한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송옥, 「자기기만의 윤리-이광수작 「무명」, 『아세아학보』2(아세아학술연구회, 1966); 김봉구, 「FONTENELLE과 비교해 본 춘원의 계몽사상」, 『불어불문학연구』1(한국불어불문학회, 1966); 김현, 「위선과 패배의 인간

하면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해온 기존의 국문학계³⁶⁾와는 대립하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민족에 대한 사랑, 법에 대한 의무라는 이광수의 주장은 모두 권력 또는 체제에 복종하는 태도의 표현이며, 그의 문학은 역사의식의 결여이자 자기기만³⁷⁾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이광수가 자아에 대한 추구하고 진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결합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들 외국문학연구자들의 비판은 민족담론이 권력체제와 공모할 가능성을 간파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김현은 1960년대 이광수 문학에 가해진 비판들을 수렴하여 『한국문학사』(1973)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광수는 역사의식의 결여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회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를 혼동시킨다. 이광수가 視覺型知性³⁹⁾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인공들 역시 대부분 시각형 지식인들이다. 사태를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판단하며, 한 사태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를 못한다. 회의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그것은 항상 연민, 동정, 초조, 부끄러움 등의 애매모호한 감정적 어휘로 채색되며, 그것은 결국 <生の 保持發展>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어휘로 환치된다.⁴⁰⁾

상, 『흙』과 『상록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1965.2).

36)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1957)에서 근대 최초의 구어체 문장의 개척자,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넘나들었던 대문호, 민족주의사상과 휴머니즘 정신의 구현자 등을 들어 이광수의 문학사적 의의를 상찬하고 있다.

37) 이광수의 ‘자기기만’을 유난히 공격했던 송옥은 식민지 말기 문학소년이던 시절 당대의 대문호이자 자신의 문학적 우상인 이광수를 만나러 허영숙의 병원으로 찾아간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때 방승을 통해 중계되는 일본 신궁의 제례의식에 경건하게 경청하는 이광수의 모습을 목격하고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송옥, 「한국지식인과 역사적 현실-수양이나, 출세냐, 정치참가냐?」, 『사상계』 145(1965.4)) 김봉구도 일본 유학시절 학병 참여를 권유하는 이광수의 연설을 듣고 그에게서 환멸을 느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8) 박헌호·김현주, 「‘이광수’를 통해 근대 한국사회의 감성·이데올로기의 동역학을 탐구한다」, 『센티넬 이데올로기』, 「이광수’라는 과제-학술대회 자료집」(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10.27.), 토론문 참조.

39) ‘시각형’이란 김봉구가 사용한 개념으로, ‘눈’의 감각을 과신하거나, 대상 뒤에 가려지고 숨겨진 것을 알아내려는 탐구욕이 결여된 지성, 표면적이고 평면적인 사색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김봉구는 이광수의 의식이 엄격한 의미에서 ‘반계몽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김봉구, 「FONTENELLE과 비교해 본 춘원의 계몽사상」, 『불어불문학연구』1(한국 불어불문학회, 1966), 52~53면 참조.

40)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123면.

회의하는 개인의 내면을 항시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했던 이광수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란 것을 소유하기가 힘들었다는 이러한 지적은 4·19를 경험한 1960년대 지성계의 활력과 자신감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여튼 생사도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이광수라는 존재는 지식인들에게 한국의 근대, 혹은 근대성을 이해하고 그 기원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대면하고 넘어가야 할 존재임에 틀림없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대립하는 관점이 진영을 형성하면서 이광수를 부지런히 소환해냈던 1960년대에 가장 인상적인 이광수와 대면을 제공한 것은 최인훈의 『서유기』(1966)다. 최인훈의 트라우마였던 어린시절의 ‘자아비판’ 체험은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 작품에서 재현되는데, 『서유기』에서는 다양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불러내 변형된 형태의 ‘자기서술’ 혹은 ‘자아비판’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에게 스스로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⁴¹⁾ 이것은 마치 무속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 세속에서의 원(怨)을 말하게 함으로써 영혼을 달래는 형식과 유사하다. 말할 기회를 봉쇄당한 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이자 산 자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오쩌둥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자아비판’은 애초에 억압받는 민중들·빈농이나, 머느리들, 하급노무자·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던 고통, 즉 슬픈 개인사를 끄집어내어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행사였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러한 ‘고해’(苦海)가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은 중국 혁명 당시 개인적 슬픔이 공적으로 사용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⁴²⁾ 해방기 이광수의 고백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는 고통과 정면 대결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는 성장기의 고통 혹은 슬픔을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일체의 ‘폭력’에 굴복했던 자신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훼손’을 했

41) 최인훈에 의해 소환된 인물은 논개, 이순신, 이광수, 조봉암이다.

42) 베라 슈와츠, 「슬픔의 창-현대 중국에서 나타난 개인적 비애의 공용화」, 『사회적 고통』(아서 클라인만·비나 다스 외 지음, 안종철 옮김, 그린비, 2002), 261면.

고, ‘몸을 더럽혔다’고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더 큰 민족에의 사랑에서 연유한 것이고 자신은 오히려 희생자라는 자기변호를 덧붙임으로써 앞의 ‘고백’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나의 고백」은 진정한 ‘자아비판’이 되지 못함으로써 문학사뿐만 아니라 근현대 한국지성사에서조차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부정적 전범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친일문제와 관련해 ‘협력의 편재성’⁴³⁾이 지적되어 왔고, 증거가 글로 남아있어 죄를 묻기 용이한 지식인을 주로 ‘친일문제’의 대상으로 초점화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⁴⁴⁾ 저작물이 증거로 남은 지식인들은 그 자료가 발굴되고, 해석의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소환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최인훈이 불러낸 이광수는 「나의 고백」을 서술하던 이광수가 결코 아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친일파의 변’을 통해 조선인 대다수를 역사의 ‘공범자’로 싸잡았던 이광수가 아니다. 『서유기』의 이광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였고, 따라서 ‘성숙한’ 시전을 부여받는다.

“(…) 이제껏 말한 것은 당시의 내 마음 속에 어지럽게 그러나 확실히 있었던 그림자들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헤아려보면 어느 것 하나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인 것만 보아도 내 마음이 허했던 것을 알겠소. 한마디로 내 마음이 허했고 허한 마음에 허깨비가 보였던 것이요. 그렇소, 요새 말로 나는 절망하고 있었소. 그때 나는 절망하고 있었소. 절망한 노예가 사슬에 묶인 자기 몸이 연화대(蓮花臺) 꽃자리 위에 올라앉아 염주를 손목에 걸고 있는 것이라고 환상한 것이요. 나는 시세가 이미 그른 줄 알았었소. 내게 보였던 그 모든 허깨비들은 실상 시세가 다 그른 줄로 판단한 내 허한 마음에 들끓는 귀신들이었소. (…) 식견이 모자랐던 탓이요. 일본제 빅터 5구짜리 라디오 하나가 세계로 통한 나의 창문이었소. 그

43) 수많은 대일협력자들이 존재한 것에 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해서 공식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난관이 존재한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증거의 제한성,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 등의 작용에 의해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은 그 공정성과 형평성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해동의 「친일·협력자 조사의 윤리학」, 『한국민족운동사연구』52(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참조.

44) 근대의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된 ‘저작권자’(소유권자) 개념은 물질적 이윤의 소유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한 사법적 처벌의 주체임을 명시한다. 이해명은 공표된 글이 범죄의 증거가 되는 사례를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이해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민족문화연구』5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참조.

창문에서는 부사산(富士山)과 조선총독부밖에는 보이지 않았소. 아아 단파 수신기 하나만 있었더라도(이광수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놈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 천추에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을, 미친 시대 속에서 한 인간의 슬기는 보잘 것이 없었소. 나는 지쳤던 것이요. 내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다 나는 지쳤던 것이요.”⁴⁵⁾

“육신으로 속세에 얽혀 있고, 육친으로 얽히고, 육심으로 얽혀 있소. 민족도 마찬가지요. 국토로, 인종으로, 언어로, 이미 가진 이득으로 그들은 얽혀 있소. 이것을 나는 알본 것이요. 나는 결국 정치가가 못 되었소. 못 되었으면 예술가답게 입을 다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군. 예술가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말란 법이 없소. 그렇군요. 나는 『흙』의 속편을 쓰는 것이 옳았소. 허송이 왜경의 등쌀에 배겨나지 못하고 결국 상해로 가는 이야기를 썼어야 옳았소. 그곳에서 새로운 운명과 싸우는 모습을 그려야 했소. 그런 사람들이 실지로 있었으니. 그런 속편을 썼으면 나는 감옥에 들어갔을 것이요. 나는 죽었을지도 모르오. 놈들의 고문 때문에. 아아, 이제야 알겠소.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요. (...) 그렇지만 국내에 있었다라면 죽은 듯이 있었으면 나는 명예는 건졌을 것이요. 민중에게 아편은 주지 않아도 되었을 테지. 가만히 있기는커녕 나는 설교하고 예언하고 가르치려고 했소. 왜 그랬을까? 그렇소, 망명하지 못했다는 실점(失點), 출발점에서 그르친 이 실점을 만회하려는 안간힘, 민족을 자기 허영심의 대상으로 삼은 사심(私心)이 있었던 것이요. 상해나 만주에 간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나는 앉아서 일거에 이루어버리자는 생각이었소. 허한 마음에 피어난 꽃은 허한 꽃, 아아 허영이었거요. 이 마음 악함이며, 오벌하소서, 악한을 벌하소서. 영겁의 지옥 속에서 이 몸은 헤어지이다.”⁴⁶⁾

일본의 패망을 예측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따라서 근시안적 사고틀에 갇혀있는 식민화된 지식인이었던 이광수는 스스로를 자책한다. 민족을 자기 허영심의 대상으로 삼은 ‘사심’(私心)을 반성하고, 터무니없이 민중에게 “설교하고 예언하고 가르치려” 한 점을 책망한다. 여기서 이광수는 마음의 심약함과 무지 등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자라난 이기적 욕망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 이광수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지면을 배치한 최인훈은, 한편으로 현병의 입을 빌려서는 그의 행위를 변호하고 방어해준다. 여기서 최인훈은 이광수가

45) 최인훈, 『서유기』(문학과지성사, 1993), 171면.

46) 위의 책, 172면

‘모름’의 ‘병’을 앓은 것이지, ‘배반’의 ‘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활용한다.⁴⁷⁾ 나아가 “동시대 동료들이 탐미로, 복고로, 은둔으로, 풍월로, 서민 취미로 각기 비켜섰을 때”⁴⁸⁾ 이광수는 “정치와 문학을 가장 괴롭게 그리고, 양심적으로”⁴⁹⁾ 살았음을 부각시킨다. 이광수에 대한 이러한 변호의 논리는 해방 직후 ‘자기비판’에 내몰렸던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을 환기시킨다. 임화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절대적 기준 속에서의 ‘양심’이 무엇보다 자기비판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역사의 방향이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의 부재와 지식의 빈곤을 안타깝게 고백한 바 있다. 이태준은 식민지 말기 절필하고 시골에 은둔한 덕에 상대적으로 일제에 덜 ‘협력’적일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해방전후」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유명하다.⁵⁰⁾ 그런데 식민지 말기 이광수의 ‘무지’는 ‘악’이 아닐지 모르지만, 역사의 격변을 목격하고서도 자신의 ‘무지’가 조선 민중에게 끼친 악영향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해방 후 이광수의 맹목성은 윤리적 잣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문학 활동을 정치적으로 전면화한 이광수의 사례를 “탐미, 은둔, 복고, 풍월”의 포즈와 대비시켜 놓은 최인훈의 의도이다. 4·19를 계기로 담론화된 1960년대 초반의 ‘순수 참여논쟁’은 사르트르의 앙가주망 개념을 내세우며 단순히 사회의 ‘재현’을 넘어 ‘변화’에 개입하는 문학의 사회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진보의 정치성이 부상됨과 동시에 냉전체제 속에서 보수의 정치성 또한 짝패를 이루며 강화되었고, 그것은 정치성·탈정치성의 경계와 교차하며 미묘한 대립과 갈등의 지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인훈이 탐미와 은둔의 문학인보다 ‘문학과 사회’ 혹은 ‘문학과 정치’에 스스로를 연루시켰던 이광수를 편드는 태도는 재론의 여지를 남긴다.


이광수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후배 소설가인 최인훈에 의해 비로소 ‘자기비판’의 의식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허구의 공간 속에서 타자에

47) 서은주, 「최인훈 소설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82면 참조.

48) 위의 책, 177면.

49) 위의 책, 173면.

50)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76-87면 참조.

의해 수행되는 ‘자아비판’의 역설은, 모름지기 이루어져야 하는 ‘순리(順理)’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생략된 채 결코 도래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투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애초에 언설행위로 부터 기원한 이 ‘고백’은 다시쓰기 작업을 통해 이광수의 ‘자아비판’을 대리함으로써 이광수에 대한 일종의 사면 의식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광수의 존재로 비롯되는 한국의 근대문학 혹은 근대지성사의 빈곤과 상처에 대한 재인식과정을 거치고자 했다. 해방 후 이광수의 ‘고백’적 글쓰기는 윤리와 비윤리의 경계 위에서 통속적 이야기성을 매개로 공감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식민지 민중 전체를 제국에 ‘협력’한 공범자로 동질화함으로써 스스로의 면죄부를 얻고자 했던 부끄러운 실체의 이광수는, 1960년대 허구의 소설 속에서 사려 깊고 성찰적인 주체로 재탄생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광수전집』11(삼중당, 1962).
『이광수전집』16(삼중당, 1963).
『이광수전집』7(삼중당, 1971).
최인훈, 『서유기』(문학과지성사, 1993)

2. 저서

- 김동석, 『뿌르조아의 인간상』(탐구당서점, 194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 2(술, 1999).
_____, 『해방 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그의 생애·문학·사상』(삼중당, 1962).
서영채, 『아침의 영웅주의』(소명출판, 2011).
아서 클라인만·비나 다스 외, 『사회적 고통』(안중철 옮김, 그린비, 2002).
최주한, 『제국 권력예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소명출판, 2005).
테사 모리스 스키, 『우리 안의 과거』(김경원 옮김, 휴머니스트, 2006).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3. 논문

- 구재진, 「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47(한국비교문학회, 2009).
김경미,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기억 서사와 민족 담론의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43(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김경수, 「해방기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민족문화연구』5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김봉구, 「FONTENELLE과 비교해 본 춘원의 계몽사상」, 『불어불문학연구』1(한국불어불문학회, 1966).
김현,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흙』과 『상록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현대문학사, 1965.2).
노연숙, 「해방 전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26(한국현대문학회, 2008).
박헌호·김현주, 「『이광수』를 통해 근대 한국사회의 감성·이데올로기의 동역학을 탐구한다」, 『센티멘탈 이데올로기, 『이광수』라는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10.27.).

- 송건호, 「춘원 이광수론-한 친일문학가의 의식구조」, 『한국근대문학사론』(임형택·최원식 편, 한길사, 1982).
- 송옥, 「자기기만의 윤리-이광수 작 「무명」」, 『아세아학보』2(아세아학술연구회, 1966).
- 서은주, 「최인훈 소설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윤해동, 「친일·협력자 조사의 윤리학」, 『한국민족운동사연구』52(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민족문화연구』5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1940년대 학병의 좌담회와 수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2(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7).
- 한기형, 「해방 직후의 수기문학-『사슬이 풀린 뒤』에 대하여」, 『사슬이 풀린 뒤』(오기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Abstract】

Ethics of Confession**- On the ‘Self-narration’ of Yi Gwang-Su after 8·15 Liberation -**

Seo, Eun-Ju*

The present study explores Yi Gwang-Su's confessional writing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focusing on the problem of self-narration as intellectual, and theory/sensibility contained in his discursive acts related to ‘pro-Japanese’ activities during the Pacific War. The primary texts used in the study are Yi Gwang-Su's “I” (Na) and “My Confession” (Na ui goback). By analyzing the probable intentions (interiority) of Yi Gwang-Su together with his strategies in producing the two texts in their order of appearance, the study problematizes Yi's ‘politics of memory’ in response to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in which he reconstructs his personal history through a self-rationalizing logic and an emotion-laden appeal to public empathy via segmentation and transformation of experience. After the Liberation, and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the public, Yi preceded his ‘confessions’ as a pro-Japanese collaborator with an autobiographical novel called “I”. “I” seeks to promote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Yi Gwang-Su the human being’ through a telling of his early pain as an impoverished orphan and his agonies as a youth wavering between idealism and reality. Here, separation of ‘mind’ and ‘body’, both in his confession of guilt to an immoral illicit love affair and through stories of his inability to find “real” love in his objective reality, must be noted. The appeal to public empathy inherent in the narrative's separation of ‘mind’ as locus of the genuine, and ‘body’ dominated by negative limitations, is subsequently deployed as a logic for explaining his ‘pro-Japanese’ activities in “My Confession”.

As a space for a unique ‘self-narration’ fusing spatial history and private memory, “My Confession” takes on the appearance of a confessional but in fact, it is far from being a confession of guilt. Rather, by equat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fate) with his own life, he takes the tragedy of the people to be his own tragedy, and uses this in place of a ‘confession of guilt’. Thus,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HK Research Professor.

post-Liberation Yi Gwang-Su's 'self narration' bears no trace of either self criticism or earnest self-examination.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novelistic characterization of Yi Gwang-Su by Choi In-Hoon in the 1960s as truly 'self-critical'. Choi's intention in having Yi confess once again may be seen as a kind of re-understanding of the pain of Korea's modern literary/intellectual history, and as an appropriation of Yi for a healing process for Korea. Yi Gwang-Su, who sought to escape personal blame by homogenizing the entire colonized people as 'collaborators', is reborn as a self-critical subject in Choi's fictional novel.

〈Key words〉 : Yi Gwang-Su, confession, intellectual, self-narration, ethics, sensibility, empathy, self-criticism, "I" (Na), "My Confession" (Na ui gobaek)

접수일: 2012.12.31, 심사일: 2013.02.07 게재확정일: 2013.02.07